

## JUVENILE TITLES

### FICTION

제목 : DRAGON DAUGHTER

가제 : 용의 딸, 하늘의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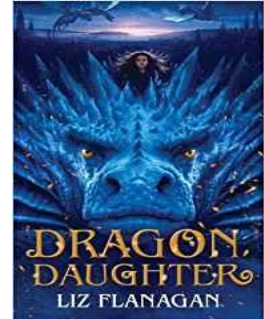
저자 : Liz Flanagan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8년 10월 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모험



\* 어린이 독자들을 위한 왕좌의 게임.

\*이 소설은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섬을 배경의 이민, 관용, 화합에 대한 이야기이다. - 「Kenilworth Books review」

\* 9세에서 11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는 2019년 리즈 북 어워드 수상작

한때는 용과 용을 타는 라이더들이 아르코시 섬의 하늘을 지배했었다. 하지만 이젠 이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들려줄 전설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벽화나 고대 보석에 새겨진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 말이다. 이 소설은 이 섬에 사는 밀라가 어마어마한 장면을 목격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밀라는 언제 자신이 이 가족에게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때부터 충실히 한 가족을 섬기고 있다. 밀라는 그집에서 가장 어린 하인으로 날마다 이어지는 고된 노동과 배고픔에 지쳐있었다. 밀라는 아무리 지치고 힘든 날에도 그녀를 부르는 명령에 절대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밀라는 그 집에서 언제까지 꼭 필요한 존재로 남고 싶었다. 열두 살의 밀라는 공작의 군인들이 도시 이곳 저곳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찰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도시 전체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밀라는 본능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어딘가에 속해 있는 안정감을 얻는 것이 스스로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렌지 나무 아래 숨어 쉬고 있던 밀라는 낯선 억양을 가지고 말하는, 이방인의 모습을 가진 한 남자를 보게 된다. 밀라가 가까이에 있는지 모르는 채 그 남자 역시 나무쪽으로 갖고 있던 짐 꾸러미 품에 안고 몸을 숨기기 위해 계속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그 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그 목소리는 꽤 위협적으로 느껴졌고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자에게 의문의 짐 꾸러미를 빼앗으려고 한다. 검은 색과 금색으로 칠한 마스크를 쓰고 온 몸에 검은 옷을 두른 남자는 짐을 갖고 있는 남자를 칼로 위협한다. 결국 밀라는 그 정체불명의 마스크를 쓴 남자가 짐 꾸러미를 지키려 하던 남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밀라는 죽은 남자가 지키려고 했던 그 짐 꾸러미에 용의 알들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동안 이 도시에서 밀라는 여러 끔찍한 장면을 보아왔지만 사람이 살해

당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밀라는 그 살인을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쥐처럼 나무 아래 숨어있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한다. 대체 저 상자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마스크를 쓴 남자는 사람을 죽였고 죽은 남자는 대체 왜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상자를 지키려고 한 것일까? 살인이 일어난 그날 밤은 공작이 오십세를 맞아 연 파티가 있던 날이었고 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흥청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오늘이야말로 마스크를 쓴 살인범을 찾아내기 가장 어려운 날이었다. 밀라는 그 암살범이 이 모든 것을 미리 계산하고 범 죄를 저지른 똑똑한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때 밀라의 눈에 죽은 남자가 두고 간 그 짐꾸러미 즉 그 의문의 상자가 어슴푸레하게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그 상자는 달콤하게, 마치 흘리는 듯한 노랫소리처럼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밀라는 숨겨둔 짐 꾸러미의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한다. 짐 속에는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이 드는 네개의 알들이 들었다. 순간, 밀라의 머릿속엔 언젠가 어떤 노인이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용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용의 알들이란 말인가? 밀라는 자신이 피곤해서 꿈을 꾸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다.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용을 찾아 세상 끝까지 떠났다. 그 여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었다. 하지만 소문으로라도 용을 찾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밀라는 결국 남자가 지키고자 했던 알들을 직접 돌보게 된다. 밀라는 이 신비로운 알들을 돌보며 알들과 자신 사이에 흐르는 묘한 어떤 연결성을 느끼게 된다. 용의 알들이 부화하고 밀라와 친구들은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진 네 마리의 용을 돌보는데 익숙해져 간다. 밀라가 용을 다루는데 더 능숙해져갈 수록 공작의 앙심과 사람들의 질투는 더 커져만 간다. 밀라 역시 그 어두운 기류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배워간다. 도시에는 점점 음습한 기운이 맴돌기 시작하고 하녀 소녀 밀라는 용의 알들을 비밀스럽게 돌본다. 밀라는 성의 통치자 올바른 공작이 분명 겉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일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밀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이 도시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존재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된다.

이 소설은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 속에서 묘사 되는 생생한 이미지로 가득하다. 특히 이 소설에는 많은 색깔들을 등장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미지를 묘사하기 위한 게 아니라 특유 감정들을 탁월하게 전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저자는 어두운 상황속에서도 밀라와 그 친구들의 우정이 발휘하는 힘에 관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용과 함께 그려내고 있다. 밀라와 친구들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같은 불의와 사람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만 좇으려는 사람들에 맞서 싸우는 법을 함께 터득해간다. 과연 밀라와 친구들은 용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분명 다음 시리즈를 애타게 기다리게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저자 리즈 플래너건 (Liz Flanagan)은 동물과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녀가 방문했던 아름다운 도시들은 이 책의 배경인 아르코성을 구상하는 데 큰 영감을 주었다고 한다. 저자는 Hebden Bridge에서 문예창작을 가르치고 있다.

제목: THE PRINCESS RULES

가제: 공주에게 규칙 따윈 필요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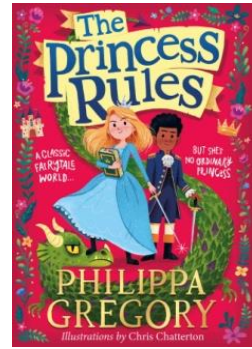
저자: Philippa Gregory

출판사: HarperCollinsChildren'sBooks

발행일: 2019년 10월 3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모험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주와 왕자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책.**

이 책은 원래 저자인 필리파 그레고리가 딸을 위해 『Princess Florizella』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던 책이다. 하지만 이번엔 저자가 손자들을 위해 원작을 재해석하여 ‘The Princess Rules’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출판했다. 이 소설은 흔히 아는 고전 동화 속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이지만 새롭게 탄생한 주인공 플로리젤라 공주는 쉽게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공주가 전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원해줄 왕자를 기다리고, 인형처럼 똑바로 서서 남들이 입혀주는 대로 옷을 입는 그런 공주가 아니다. 그녀는 이 세상 모든 종류의 놀라운 모험을 떠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공주다.

먼 옛날 칠왕국이라 불리는 곳에 살던 왕과 왕비는 아주 오래도록 애타게 아들을 낳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그들의 품 안에 찾아 온 아이는 왕자가 될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다. 왕과 왕비는 비록 아들을 원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딸을 사랑하게 되었다. 왕은 어쨌든 자신의 딸이 부유한 나라의 왕자와 결혼 할 것이며 아름다운 여왕이 될 것이라 믿으며 기뻐하기도 했다. 그리고 딸의 이름을 ‘플로리젤라’라고 지었다. 공주가 등장하는 어느 동화 속 공주들이 겪었던 수많은 불행은 플로리젤라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왕과 왕비는 모든 사람을 공주의 세례식에 초대할 덕에 누군가를 노여워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화가 난 마녀가 아기 공주에게 치명적인 주문을 걸어 생쥐로 만든 일도 없었으며 높은 탑에 공주를 가두어 어느 왕자가 공주의 머리카락을 타고 탑을 올라올 일도 없었으며 왕비가 건강하게 잘 살았던 덕에 공주에게 끔찍한 계모가 생길 일도 없었다. 무모한 부모의 아량 덕분에 플로리젤라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플로리젤라는 ‘공주 규칙’ 같은 건 배우지도 않았다. 아침에는 켈리 빈이라는 말과 우당탕탕거리며 명랑한 시간을 보냈다. 플로리젤라는 왕실에서 일을 도맡아 하기도 했는데 특히 왕가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 되는 세금과 왕과의 존재에 대한 불만 사항에 대해 답하는 일을 가장 좋아했다. 게다가 플로리젤라 공주는 그 불만들에 동의하기도 했다. 플로리젤라에게는 몇몇 공주 친구들이 있었고 그들의 머리 스타일, 옷, 신발들이 예쁘다고 생각하긴했다. 하지만 플로리젤라에게 그들의 삶은 너무나 지루해보였다. 플로리젤라는 자기가 있고 싶은 옷을 꺼내 입었다. 말을 타거나 달리거나 걸어야 할 땐 바지를 입고, 드레스가 입고 싶은 날엔 드레스를 입었다. 플로리젤라에게는 꼭 따라야 할 규칙 따위는 없다. 다른 공주들이 누

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어딘가에 나가기 위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플로리젤라는 칠왕국을 통치하는 법을 배우고 나름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모았다. 플로리젤라가 ‘생각’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때마다 다른 공주들은 마치 못들을 것을 들은 것처럼 놀라며 자신들에게 생각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플로리젤라는 이처럼 다른 공주들과 너무나 다른 공주였다. 그러던 어느 날 플로리젤라는 베넷 왕자의 무도회에 초대를 받는다. 왕과 왕비의 예상과는 달리 플로리젤라는 그 무도회에 참석하기로 한다. 물론 그 이유는 여느 공주들처럼 왕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가 아닌, 그녀의 친구들을 보러 가기 위함이었다. 총 121명의 공주들이 무도회에 모인 가운데 결혼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공주는 플로리젤라가 유일했다. 다른 공주들은 잘 차려입은 드레스에 혹여나 음식물이 묻을까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지만 플로리젤라는 연회 그 자체와 눈앞에 펼쳐진 맛있는 음식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한편 무도회의 주인공인 베넷 왕자는 고민에 빠져있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공주들은 하나 같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왕자는 갑자기 모든 가식에 질리는 느낌이 들었다. 이들 중 하나와 결혼해야 한다면 너무 끔찍할 것 같다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지친 왕자는 우연히 마침 라즈베리를 가득 담은 그릇을 해치우고 있던 플로리젤라 공주 옆에 앉게 된다. 왕자는 이날 처음 만난 플로리젤라 공주에게 조언을 구하며 무도회가 진저리나게 싫어진 자신의 고민까지 털어놓는다. 다른 공주들과는 다른 플로리젤라에게 호감을 느낀 왕자는 플로리젤라에게 청혼한다. 하지만 모두가 플로리젤라는 그의 청혼을 거절한다. 플로리젤라는 자신은 언젠가 칠왕국을 직접 통치하는 여왕이 될 것이며 왕의 그늘에서 평생 왕비로만 살기엔 자기에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삶을 꾸려가고 싶다고 말한다. 플로리젤라 공주는 베넷 왕자에게 친구가 될 것을 제안하고 둘은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로 한다. 플로리젤라의 생각에 감명 받은 왕자는 무도회에서 자신의 신부를 선택하는 일을 포기한다. 이 무도회에 모인 121명의 공주들은 분명 플로리젤라만큼이나 기발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하고 호기심이 많은 소녀들이었을 것이다. 다만 플로리젤라와는 달리 공주 규칙이라는 허무맹랑한 사회적인 규율에 자신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스스로의 모습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일 뿐이었을 것이다. 20년이 지나 새로운 공주 이야기를 쓴 저자는 아마도 점점 변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공주,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책을 다시 썼을 것이다. 어린이 독자들은 답답한 성을 벗어나 새로운 꿈을 꾸며 모험을 떠나는 공주와 왕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필리파 그레고리는 역사 소설가로 대표작 『The Other Boleyn Girl』로, 2002년 Romantic Novelists ' Association에서 올해의 로맨틱 소설 상을 수상했으며 이 작품은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